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 규모는 우리학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1층으로 되어있고 주차장이 커서 규모가 비교적 커 보입니다. 기숙사는 우리학교와 비슷합니다. 화장실 한 개당 샤워실이 2개씩 있습니다. 시설은 어딜가나 깨끗하고 캠퍼스 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 쓰레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와 잔디가 많아 자연 속에 있는 기분이어서 3주내내 스트레스 없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교내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해 줘서 쉽게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웹디자인 수업과 ESL수업이 있습니다. 웹디자인 수업은 매일 3시간씩 컴퓨터실에서 진행됩니다.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면 큰 어려움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딩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나갑니다. 과제는 따로 없고 그 날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수업준비도 따로 필요없습니다. ESL수업은 2시간 혹은 3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영어를 배우는 느낌입니다. 주로 외국인 파트너와 함께 대화를 만들거나 각자 문장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선생님께서 연강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셔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제의 양은 날마다 다르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빠르고 스페인어를 함께 사용하셔서 집중해서 들어야합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파견기간 내내 항상 필드트립을 갔습니다. 터틀베이, 댐, 동굴, 카약, 샌프란시스코, 워터파크 등등 레딩에 있는 관광지에 방문하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처음 가보는 곳도 있었습니다. 준비물은 날마다 인솔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십니다. 관광지에 가서 기념품을 사거나 음식을 먹고 싶다면 개인비용이 필요합니다. 물에 들어갈 기회는 4번 정도 있습니다. 동굴에 갈 때 보트와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보통 가이드가 있는 활동에는 함께 다니고 아닌 시간은 시간을 정해주고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보통 42도인 것 같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찜질방 불가마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흙도 뜨거워져서 황토 한증막에 있는 느낌입니다. 선크림을 발라도 햇빛이 쎈 날에는 피부가 따갑습니다. 실외에서 필드트립을 한 날이면 알로에를 항상 발랐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교내에서는 보완관이 항상 순찰을 해서 안전합니다. 외부로 나갈 때에는 보통 외국인친구들과 함께 나가 위험은 덜하지만 밤에 나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레딩 사람들은 무례하다는 말을 외국인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고 한국인끼리 있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2인 1실로 2층 침대가 2개 있습니다. 1층에는 책상, 2층에는 침대입니다. 건물은 반으로 나눠 한 쪽은 여자, 다른 한쪽은 남자가 사용하고 중간에 있는 라운지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항상 열쇠 2개(방, 건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주방은 12시면 잠구고 그 전까진 각자 사온 재료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음식이 제공되지만 추가로 원하는 재료는 각자 사왔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 각 75, 25센트가 필요합니다. 세제는 제공되고 섬유유연제는 없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주로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약속이 있으면 외부에 나가 식사를 하였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미국식으로 식단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음식이 대체적으로 짭니다. 매운 맛을 원하면 핫소스가 있어 넣어먹으면 됩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교통편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한번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차를 이용했습니다. 간혹 학교에서 버스를 보긴 했지만 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비행기	1,420,000	개인 예약
로밍	30,000	파견기간 내내 사용
쇼핑&식사	900,000	
합계	2,385,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캐리어 공간 넉넉하게 챙기기 1인당 위탁수화물만 46kg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유공간 없이 오면 캐리어를 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것처럼 짐 챙겨오기 짐은 적을수록 좋지만 각자 필요한 물품은 꼭 챙겨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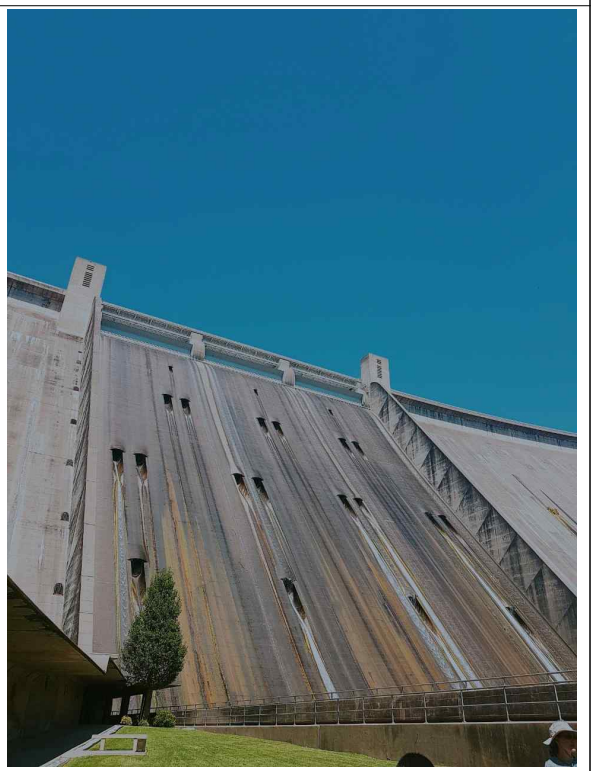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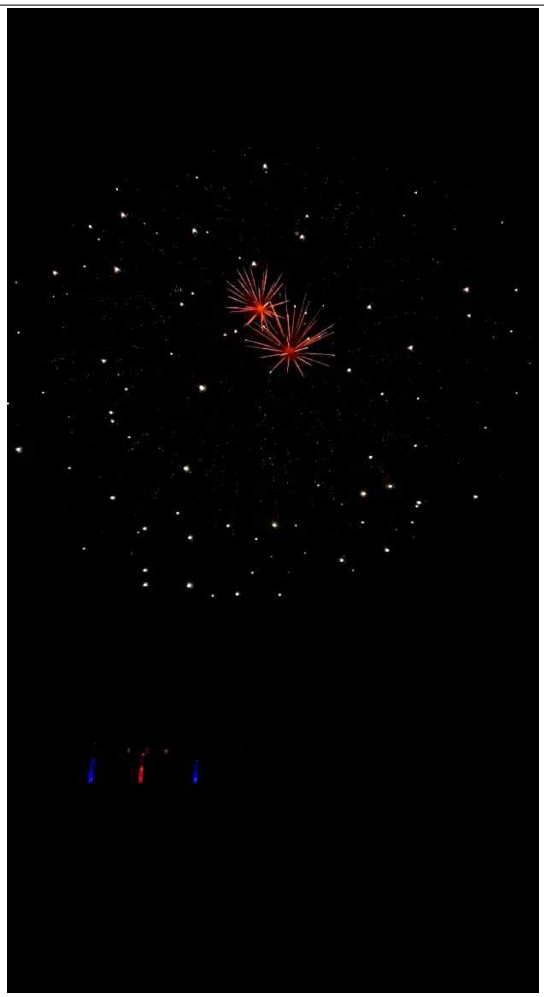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웹디자인을 배우러, 영어실력을 증진시키려고 신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곳으로 필드트립을 갈 수 있었고 레딩이라는 지역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초반에는 부담도 되고 긴장한 상태로 있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주셨습니다.

3주 동안 미국에 있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글로벌 빌리지에서 생활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한 친구들 덕분에 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함께한 외국인친구들은 동양인이라는 혹은 다른 국가 사람이라는 눈으로 한국학생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정차별에 대해 걱정하고 갔던 저로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학과, 공부 등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 접고 썸머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힐링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어른들의 말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가고 싶고 교환학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샌프란시스코로 필드트립을 다녀왔다. 골든브릿지가 마지막일정이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리 위까지 올라가 볼 수 있었다.		카약을 태어나서 처음 타봤다. 날씨가 좋아서 카약을 타다가 물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서로 물장구도 치고 레이스도하였다. 마지막까지 뒤쳐지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샤스타 동굴이다 여기가 가장 많이 사진 찍는 곳이라고 한다. 가이드가 함께해 길을 잃지 않고 이곳저곳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샤스타 댐이다. 타워를 새워 댐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크기에 놀랐고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부터 다리를 걸어갔다. 내부에 들어가

		서는 가이드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저녁으로 인앤아웃버거를 먹었다. 각자 원하는버거를 선택하여 먹었다. 미국의 3대 버거 중 하나를 먹을 수있어 좋았다.		4th of July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다. 모든 지역에서 밤에불꽃놀이를 한다. 우리의 첫 필드트립이었고 redding civiccenter에 가서 20분동안 불꽃놀이를 보았다.